

한-카자흐스탄 경제협력 확대 논의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 긴밀한 한-중양아 협력 확대 방안 논의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4.10일(금) 서울에서 알리벡 바카예프 카자흐스탄 외교부 차관과 면담을 갖고, 양국 간 경제 협력 확대를 논의하였다. 이번 면담은 오늘 9월 한-중양아 정상회의를 앞두고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면담에서 양측은 중동 및 러시아 등 글로벌 지정학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한-중양아 협력을 확대해나갈 필요성에 공감하고, 향후 무역경제공동위원회 등의 협력 채널을 통해 핵심광물, 제조, 플랜트 등 협력 의제를 지속적으로 구체화 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우리측은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애로 사항을 언급하고, 우리 기업의 영업 활동 지원과 기업 투자 확대를 위한 카자흐 측의 관심을 요청 하였으며, 카자흐측은 한국 기업의 애로 해소를 지원 의사를 표명하고, 핵심 광물, 에너지, 플랜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을 언급하였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카자흐스탄은 중양아 지역 최대 교역국이자 투자 대상국”이라며 “그간의 긴밀하고 호혜적인 협력 기반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진척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국은 오는 9월 ‘한-중양아 정상 회의’ 등을 계기로 협력이 심화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담당 부서	통상협력국	책임자	과 장	정근용 (044-203-5680)
	통상협력총괄과	담당자	사무관	김고운 (044-203-5685)